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 2026년 임시총회 개최



안동권씨파종회장협의회(安東權氏派宗會長協議會: 회장 권오돈)가 주최하는 “2026년 임시총회”가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안동시 경동로 220(송현동) ‘묵향’ 2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권오돈 파종회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권기호, 권주연, 권중근 등 4명의 고문과 권정창 전 전례위원장, 각 파종회장 및 사무국장 등 모두 3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오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시총회에서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상음례, 참석자 소개, 회장 인사, 경과보고, 재무보고, 의안 심의,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의안 심의는 임원 선출, 능동제사 추향 도유사 및 헌관 추천, 대중회 건의사항, 협의회 발전방안 등 4개 안(案)이다.

권오의 국장은 앉은 자리 순서대로 참석자 전원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권오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거리가 제일 먼 서울에서 온 저가 제일 먼저 행사장에 도착했고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회장들은 좀 늦게 도착했다”며 빼있는 농담을 한 후 “각 파종회장들이 모였으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혁성씨(좌윤공파)가 최근 경상북도향교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인사 차 와서 인사말에서 “권문을 위해 빛낸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권문을 위해 일조를 하겠다”고 약속하자 모두들 많은 박수를 보냈다.

권오의 국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2013년 10월 3일 부호장공파 일원정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갖는 등 지난 2011년부터 올 4월까지 총 27차례 걸쳐서 일어난 일 들을 보고했다.



곧 이어 지난 4월 30일 제27차 정기총회에서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이 파종회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그때 부회장 및 감사로 선출하지 않아 오늘 선출했다. 이에 따라 부회장에 권기수(별장공파회장), 감사에 권우영(종파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또 파종회장협의회 추천을 받은 권오진(부정공파), 권상규(부정공파), 권택호(북야공파) 등 3명은 오는 10월 추향제 때 시조 및 아시조의 도유사 및 헌관으로 선임되었으며 재유사는 각 파종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제3안의 대중회장 출마자 자격 요건 4가지는 파종회장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중회에 직접 반영하도록 건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한 권태정(검교공파회장)은 대중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대중회장 출마자격 요건 4가지를 대중회에 직접 건의하기로 했다.

권오의 사무국장은 15개 파종회는 2026년 회비를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가 끝나자 권오돈 협의회 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짧은 우산 1개와 타월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준 후 화기에애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삼가 고인의명복을 빕니다.

“전주,완주 종친회 고 권봉철 회장을 추모하며”

고 권봉철 회장 유가족 종친회 방문 감사 인사...아버지 뜻 이어 종친회 발전에 함께 기여하기로



안동권씨 전주,완주 종친회 제28대 회장을 역임한 고 권봉철(33세) 회장께서 지난 9월 7일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오늘 임원회의에 앞서 먼저 가신 고인에 대한 묵념 후 우리 종친회 부회장 권오선(35세) 목사의 고 권봉철 회장님의 추모 기도를 시작으로 오늘 유족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기도문】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오시며 종친의 화합과 복지 발전에 헌신하셨던 그 뜻과 노고를 저희가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고인의 가족과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남겨진 슬픔 가운데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힘을 얻도록 의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종친들도 고인의 따뜻한 마음과 화합을

중시했던 뜻을 본받아 전주,완주 종친회가 더욱 화목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인은 평소 종친 간 화합과 친목을 중요하게 여기며 종친회 발전과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헌신과 열정을 다해왔다. 특히 종친회 장학 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매년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인재 육성과 후손 사랑에도 큰 뜻을 실천 해 왔다. 이러한 고인의 뜻을 기리며 우리 종친회에서는 장례기간 동안 한마음으로 조문하고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장례를 마친 후 고 권봉철(33세) 회장의 가족 이유옥 여사를 비롯 아들 권성태(34세) 장녀 권소영, 차녀 권선영씨가 2026년 9월 22일 종친회를 직접 방문하여 아버님의 장례기간 동안 종친 어른들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위로와 슬픔을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아버님께서 생전에 평생 애정을 갖고 함께 하셨던 종친회가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유가족을 대표하여 장녀 권소영씨가 2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종친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밝혔다.

우리 종친회 권기성(35세) 회장께서는 먼저 고 권봉철(33세) 회장의 장례기간 동안 위로와 슬픔을 같이한 종친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종친회를 직접 방문한 고인의 가족 이유옥 여사를 비롯 아들 권성태(34세) 장녀 권소영, 차녀 권선영씨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생전에 종친회의 활동과 추억의 사진들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헌신과 뜻을 기리는 한편 유가족과 종친 간에 유대와 화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종친회 발전을 이어 가자고 말했다.

권영춘 총무이사

트롯, 신중년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다

익숙한 가락에 오늘의 희망을 엿다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북야공파)



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 어깨가 한번 들썩이고, 웃음이 나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어지고, 내일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 생긴다면 그것 역시 삶을 앞으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음악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삶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은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 — 익숙한 가락에 오늘의 희망을
트롯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가락과 친근한 리듬, 사람 사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내는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익숙함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위에 지금을 살아가는 신중년의 이야기를 새롭게 엮고 싶었습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토대로 새것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익숙한 트롯의 정서는 가져오되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보다는 오늘의 활력을, 잃어버린 젊음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앞으로 남아 있는 가능성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반드시 낯선 것에서만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좋아해 온 것에 오늘의 생각을 엮을 때, 익숙한 것은 다시 새로운 콘텐트로 태어납니다. 트롯이 그렇습니다. 신중년의 삶도 그렇습니다.

맺음말 — 오늘도 내 인생은 진행 중
무가사 음악을 만들면서는 마음을 쉬게 하는 음악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트롯을 만들면서는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움직이게 하는 힘을 느꼈습니다. 무가사 음악이 마음을 쉬게 한다면, 트롯은 마음을 다시 뛰게 합니다.

신중년의 삶에도 쉬어야 할 때가 있고 다시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다시 설레고, 다시 웃고, 다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박수보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박수 한 번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은 진행 중입니다.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정답게, 아름답게, 동반성장합시다!

검교공파 임원회의 개최

검교공파 파종회는 2026년 9월 1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송덕재 대청마루에서 권태정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 15명이 참석해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파종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장점을 서로 주고받고 하여 몇 가지 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재정문제는 임원회비를 연회비로 변경한다.
둘째 추향제 날파 변경 문제는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셋째 초헌관은 회장 임기 중 첫째는 파종손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는 추천된 분이 하기로 한다.
넷째 추향제 즐기는 국역을 병행해서 진행을 해 모두가 알기 쉽도록 한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권정운 운영위원의 달무리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지난 과거 이야기에 웃음꽃이 피었다. 마지막으로 권태정 회장은 건강을 잃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건강에 유의하면서 추향제 때 만나자고 하고 헤어졌다.

권영호 총무부장

檢校公派 派祖 秋享祭 및 定期總會 案内

謹啓 時下

중추지절에 파친님들의 평안을 앙축하옵니다.

검교공파 파종회에서는 파조(諱 偶 10世)의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시 : 2026年 10月 30日(陰曆9月20日 中丁日)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351 파조단소 (경북 상주시 공검면 율곡2길 114-14)
* 추향제 봉행 후 정기총회를 壇前(단전)에서 개최합니다.

案件

1. 파종회 발전 방안
2. 기타 현안문제 토의

회장 권태정 010-4204-9712 총무부장 권영호 010-9355-2968

安東權氏 檢校公派 派宗會 會長 權 泰 銳